통도사, 사찰 최초 '개방형 수장고' 건립한다

불화전문 및 성보박물관 활용
문화재 보존과 관람 동시가능

2022년 12월 중 완공을 목표로
지난해 1월부터 연구 설계 시작
지하1층 지상1층 연면적 1140평
자연친화적 복합 문화 공간으로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통도사가 추진 중인 개방형 수장고와 복합문화공간 조감도. 과거와 현재 · 미래를 잇는 살아있는 불교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통도사(주지 현문)에 '개방형 수장고'가 새롭게 조성된다. 이를 통해 통도사는 보유문화재의 안정적인 보존관리 뿐 아니라 시민들의 전통문화 접근성을 높여, 명실상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살아 있는 불교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통도사가 추진 중인 개방형 수장고는 성보문화재 보존 및 관람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전시 시스템이다. 위치는 통도사 내 지산리 609-11번지 서운암 인근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 1월~ 2022년 12월, 총 3년간 진행된다. 총 사업비는 110억이며 지하 1층, 지상 1층과 녹지 지붕 형태 현대식 건축물로 건립된다. 대지면적 6212(1880평), 연면적 1140평 규모다. 수장고는 통도사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와 유물을 보관하는 동시에 불화전문박물관이자 살아있는 불교문화공간으로 활용될 방침이다.

현재 통도사는 보물20건 36점, 경상남도 유형문화재가 30건 850점, 경남문화재자료 12건 16점 등 다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4만 5000점에 이르는 유물도 보관 중이다. 하지만 전시할 수 있는 유물은 일부에 불과하고 수장고 또한 노후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통도사는 효율적인 유물관리 및 시민들의 관람을 동시에 제공하기 위해 개방형 수장고를 고안, 건립 계획에 돌입했다. 특히 통도사가 보관 중인 유물의 특색과 박물관의 특징에 맞춰 설계에 만전을 기했다.

새롭게 건립될 개방형 수장고 지하 1층에는 개방형 체험 다목적실과 학예실, 유물 정리실, 전기실 등이 위치하며 지상 1층은 로비와 관람객의 쉼터인 편의 시설, 문화재 이동 관리 공간 등이 자리할 예정이다.

특히 수장고는 대형 괘불을 보여 줄 수 있는 불화전문 박물관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불화와 괘불을 장엄할 수 있도록 높이를 조정했으며,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최첨단 시스템이 설치된다.

실내에는 자연 채광 및 바람으로 충분한 밝기를 제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특히 자연 친화적 건물로서 주변 환경과도 어울릴 수 있도록 녹지형 지붕으로 특별 설계돼 시민들에게 통도사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현대식 건물을 선사할 전망이다.

통도사 재무국장 현담 스님은 "문화재 보존을 위해 까다로운 절차와 심의를 통과하고 현재 설계 승인이 되었다"며 "건축 허가 중이며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통도사는 수장고를 중심으로 복합문화공간도 함께 조성해 문화유산 보존과 시민들의 문화 향유에도 앞장선다.

복합문화공간은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완충구역에 건립된다. 완충구역은 세계문화유산의 가치를 보존하고자 유네스코에서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정하는 공간이다. 통도사는 지난 1년간 세계문화유산 관리 계획을 시행해 왔으며 역사성과 문화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수행 및 신앙 공간과 일반 문화공간을 분리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복합문화공간은 성보박물관 앞에 위치한 주자창 인근에 지하 1층, 지상 1층의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건물로 공사될 예정이다. 예산은 280억이며 현재 설계 신청을 해둔 상황이다. 복합문화공간은 시민 및 관람객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전통찻집과 카페 및 체험공간이 들어선다. 아울러 지역 예술인들을 위한 전시 및 체험장도 있어 지역 경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담 스님은 "개방형 수장고와 복합문화공간 건립불사가 마무리되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보존하고 널리 세계인과 불교문화를 향유하는 거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이어 스님은 "개방형 수장고는 현대문명 속에 과거 전통을 더해 풍요로움을 선사할 것이며 복합문화공간은 불자와 국민들에게 '힐링'을 선사하는 동시에, 기존 전통 수행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 장소를 정리해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어 공간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율사 자운 스님 생가 복원 본격화

지난 4월 스님 생가터서
탄신 110주년 다례 봉행
본격적인 선양사업 '첫발'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율사인 자운 스님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자료를 필사하며 방대한 율장을 정리한 중흥율조로 평가받고 있지만, 스님의 사상과 유훈을 기리는 선양사업이 활발하지 못했다. 대율사 자운 스님의 생가 터가 복원된다. 또한 생가 터 복원을 시작으로 자운 스님의 사상을 선양하기 위한 사업 확대도 기대를 모은다.

자운 스님 탄신 110주년을 맞아 스님 생가 터인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노동리 50번지에서 기념 다례재가 지난 4월 14일 봉행됐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봉행된 다례재에는 조계종 전계대화상 무관 스님, 前 포교원장 혜총 스님, 심원사 회주 종성 스님 등이 참석했다.

자운 스님의 출생지는 오대산 인근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문도인 홍천 불광사 주지 본홍 스님이 수년간 오대산과 계방산 등을 살피고, 자운 스님 속가 친척들의 증언을 들어 생가터가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노동리 50번지 일원임을 확인했다.

본홍 스님은 확인된 자운 스님의 생가 터 주변 토지를 매입해 유적지 조성 불사에 들어갔으며, 움막을 짓고 2년간 동안거 100일 기도를 진행하기도 했다.

자운 스님 문도 스님들은 생가 복원 불사를 시작으로 자운 스님 선양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前 포교원장 혜총 스님은 "자운 스님의 생가 복원 불사는 지관 스님께서 완수하려고 했던 불사이다. 문도인 본홍 스님이 직접 수소문해 생가 터를 확인하고 복원 불사에 들어갔다"면서 "생가 복원 불사를 시작으로 자운 스님 선양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전 문도들이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운 스님은 1927년 해인사에서 혜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남전 스님에게 사미계를, 일붕 스님에게 보살계와 비구계를 수지했다. 해인사 선원에서 수선안거를 성만하고 1935년 울진 불영사에서 3년 결사를 회향했다. 해인사 주지와 조계종 총무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1980년부터 조계종 전계대화상으로 10만여 명의 수계제자를 배출했다. 스님은 1992년 1월 4일 해인사 홍제암에서 세수 82세, 법랍 66세로 원적에 들었다. 신성민 기자

"살처분동물 넋 위로"…방역정책 개선 촉구

사노위 등 불교계 93개 단체
6월2일 동물추모기도회 봉행

불교계 93개 단체들이 반생명적이고 비합리적으로 이뤄지는 '동물 살처분' 정책의 전면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선제적 방역이란 명분하에 진행돼 온 무차별적 살처분으로 생명을 잃어간 수많은 가축들을 위로하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더 이상의 무의미한 죽음은 없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와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만), 신대승네트워크(소장 박재현) 등 불교계 단체 93곳이 6월 2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예방적 살처분 희생 동물 추모기도회'를 봉행했다. 그간 불교계에서 살처분으로 생명을 잃은 동물들의 천도재나 살처분 법개정 촉구 활동 등은 개별적으로 진행돼 왔지만, 불교계 100개 가까운 사찰과 단체들이 뜻을 함께하며 조직적인 행보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조류독감 발생 당시, 화성 신안농장의 닭 7000여 마리가 거리를 기준으로 한 방역정책에 의해 살처분 당한 사례가 기폭제가 됐다. 주최측에 따르면 당시 화성 신안마을은 공장형 축산시설이 아닌 동물복지 기법으로 운영되는 축산농가들이 대부분이었음에도, 단지 거리상 방역구역이라는 이유로 일괄적으로 살처분당할 수밖에 없었다.


불교계 단체 93곳이 6월 2일 봉행한 '예방적 살처분 희생 동물 추모기도회'.

이날 기도회는 그동안 조류독감 · 구제역 · 돼지열병 등 동물감염병과 관련한 일방적인 방역정책으로 살처분돼 죽어간 동물들의 넋을 애도하는 동시에 인간의 이기심을 참회하고 농림축산부의 방역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공감의 장으로 마련됐다.

특히 참여 단체들은 더 이상 인간의 이기심으로 동물의 목숨을 일방적으로 빼앗을 수 없도록 규제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송지희 기자

대행선연구원 개원 5주년
제5회 대행선연구원 학술대회



깨달음의 삶을 가르치는 붓다의 가르침은 진정한 인간의 삶의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시대 상황에 따라서 중생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계도하기 위하여 정토·화엄·법화·유식·선 등의 다양한 사상으로서 나타났고, 여기에는 나름대로 이들 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행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기존의 여러 불교사상과 대행선의 수행법을 비교해 보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하여 대행선 수행법의 정체성을 보다 분명히 파악할 수 있음은 물론 이 시대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실마리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불교사상과 대행선의 수행론

■ 일시 : 2021. 06. 19(토) 10:00 - 17:00 ■ 장소 : 한마음선원 안양 본원 3층

1부 개회식(10:00 ~ 10:45)
· 묘공학술상 시상식
· 묘공학술장학 증서수여식

2부 오전 학술발표(11:00 ~ 12:20)
좌장 : 박경준 명예교수(동국대)
· 발표: 김재성교수(능인대학원대학교)
· 논제: 초기 불교 사상과 대행선의 수행론
· 논평: 정준영교수(서울불교대학원대)

· 발표: 이기운교수(동국대)
· 논제: 천태학에서 바라본 대행선
· 논평: 최동순교수(동국대)

2021년 6월 19일(토)
(10:00 ~ 17:00)
YouTube
유튜브 한마음선원 채널 생중계
https://www.youtube.com/user/HanmaumTemple
※자료집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수 있습니다.

3부 오후 학술발표(13:30 ~ 15:40)
좌장 : 김용표 명예교수(동국대)
· 발표: 박보람교수(충북대)
· 논제: 여래장과 여래출현을 통해 본 대행선의 수행관
· 논평: 김천학교수(동국대)

· 발표: 차상엽교수(경북대)
· 논제: 공과 여래장, 그리고 주인공
· 논평: 남수영교수(능인대학원대)

좌장 : 서윤길 명예교수(동국대)
· 발표: 김호귀교수(동국대)
· 논제: 대행선 & 묵조선 수행의 심리적 성격 고찰
· 논평: 이상호박사(서강대)

토론광장 15:50 ~ 16:50
좌장 : 김응철교수(중앙승가대)

폐회식 16:50 ~ 17:00
총평 / 마무리인사

대행선연구원 The Center for Daehaeng-Seon Studies
031)470-3276/3277 E-Mail : ds7788@hanmaum.org